

면세유값 폭등에 어민 조업 일수 줄었다

전남, 지난해 어획량 186만t 전년비 6.4% 감소...국내 58% 비중 차지 전북 5.1%·다시마 18.6%·참조기 46.5%↓...김·광어 등 2년 연속↑

지난해 출어 경비 급증에 따라 어민들이 조업 일수를 줄이면서 전남 어획량이 전년보다 6%가량 감소했다.

참조기 최대 주산지인 전남 생산량은 1년 새 반 토막 났고, 전북 생산량도 5%가량 줄었다.

5일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어업 생산량은 186만4765t으로, 전년보다 6.4%(-12만7425t) 감소했다.

전남 어획량은 지난 2021년 199만2190t으로, 통계를 낸 1970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이듬해 감소했다.

국내 어획량의 58.3%를 차지하는 전남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전국 어획량도 전년보다 5.5% 감소(339만t→320만)했다.

전남 주요 수산물 어획량을 보면 지난해 참조기는 50% 가까이 생산량이 줄었고, 전북도 감소세

를 나타냈다.

지난해 전남지역 참조기·조기·기타 조기류 생산량은 1만120t으로, 전년보다 46.5%(-8794t)나 급감했다. 전남은 참조기 생산량은 2020년 2만4386t, 2021년 1만8914t, 지난해 1만120t 등으로 2년 연속 줄고 있다. 지난해 전남 참조기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1만6969t)의 59.6% 비중을 차지했다.

전국 어획량의 99%를 차지하는 전남 전북 생산량도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전남 생산량은 2만1964t으로, 전년(2만3133t)보다 5.1%(-1169t)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다시마 생산량도 2021년 67만3274t에서 지난해 54만7800t으로, 18.6%(-12만5474t) 감소했다. 전남 다시마는 지난해 기준 전국 97.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마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반면, 김 생산량은 소폭 증가했다. 전남 김 생산량은 42만5685t으로, 전년보다 2.2%(9030t) 증가했다. 전남 김 생산량은 지난 2019년 47만t에서 2020년 39만으로 급감한 뒤 2년 연속 증가 추세다.

전남의 대표 수산물 중 하나인 꼬막·새꼬막 생산량은 지난 2021년 5181t에서 지난해 6224t으로, 20.1%(1043t) 증가했다.

지난 2020년 전남은 전국 꼬막 생산량의 95.9% 비중을 차지했지만, 그 비율이 2021년 94.3%, 지난해 88.5% 등으로 줄고 있다.

반면 납치류(광어) 생산 비중은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전남 납치류 생산 비중은 2020년 38.7%, 2021년 41.8%, 2022년 43.5% 등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남 납치류 생산량은 2만1332t으로, 전년(1만8672t)보다 14.2%(2660t) 증가했다.

전남 홍어(참홍어·홍어류) 생산량은 지난해 2021년 1275t에서 지난해 1815t으로, 42.4%(540t)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홍어 생산량은 2.0% 감소(6180t→6054t)했다.

전국 생산량의 6분의 1(16%)을 차지하는 전남 멸치 어획량은 전국 감소 추세와 달리 증가했다.

지난해 전남 멸치 생산량은 2만1139t으로, 전년(1만8614t)보다 13.6%(2525t)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생산량은 7.9% 감소(14만3414t→13만2151t)하면서, 전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서 16%로 늘었다.

고등어 생산량은 전남에서 지난 2021년 4899t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1년 사이 41.3% 줄며 2874t으로 주저앉았다. 지난해에는 태풍과 폭설 등으로 남해안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고등어 조업 일수가 줄었다.

최정환 수협중앙회 전남본부 팀장은 지난해 전남 어획량 감소에 대해 "지난해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고 어망 등 선수 물자 가격이 오르면서 출어 경비 부담이 심해졌다"며 "기존 한 달에 두세 번 출항했던 어민들이 아예 출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면서 줄어든 조업 일수에 따라 어획량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목공예 체험교육' 참가 신청 전남산림자원연구소 9일까지 모집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국산 목재 사용 활성화로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목공예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생은 오는 9일까지 정기간 5명, 일일 체험과정 10명 내외를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 참가는 목공예에 관심 있는 전남 지역 거주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목공예에 필요한 기본 장비인 테이블톱, 목공용 동근톱기계 등 일반인이 흔히 접할 수 없는 30여 종의 전문 장비를 보유하고 목공예지도사 지도하에 안전한 체험교육이 운영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오는 11일부터 8주간 운영되는 목공예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바쁜 직장인을 위해 매주 토요일 정기반과 일일체험과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정기반은 8주 동안 9시부터 12시까지, 일일체험 과정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다. 참가 교육비는 무료지만 재료비 부담이 있다.

정기반은 매주 다양한 주방 조리도구 만들기 체험을 하며, 일일 체험과정은 머리핀, 나무반지 등 생활 속 목공예와 액세서리 소품 제작 교육으로 진행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난 3일 광주시 광산구 농협 광주본부에서 열린 한국새농민회 광주광역시회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전남도, 싱가포르 식품박람회서 남도음식 전용관 개설

10일까지 참여기업 접수

전남도가 오는 4월 싱가포르 국제 식품박람회(FHA Food & Beverage)에 남도음식 전용관을 개설, 남도음식 세계화와 도내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특히 수출기업이 박람회장 한국관 내에 개별 부스 포함하도록 지원했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글로벌 식품기업과 경쟁하도록 부스 디자인과 설치부터 운영까지 획기적인 방식으로 개선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 농수산물수출 브랜드인 '더 키친 오브 코리아, 전라남도(The Kitchen of Korea, Jeollanamdo)' 통합부스를 설치해 수출기업의 전시 및 상담공간을 운영하고 한국 음식의 정수인 '남도음식'을 홍보함으로써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전남도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본사 또는 공장이 전남에 소재한 식품기업이나 전남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기업 가운데 참가를 바라는 기업은 오는 10일까지 전남도 수출정보망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현지 시장성·경제성, 국제인증 보유 현황, 수출기반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참가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박람회 등록비, 부스 입차비 및 장치 설치비, 통역비 등을 지원한다.

오는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 엑스포에서 열리는 싱가포르 국제 식품박람회는 46년의 역사를 지닌 아시아 최대 국제 식품박람회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2022년 50여 국가에서 2000여 식품기업과 6만여 관람객이 참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새농민 광주시회 정기총회 2023년 주요활동 계획 발표 등

농협 광주본부는 한국새농민 광주시회(회장 노흥기) 정기총회가 지난 3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총회는 2022년 사업결산보고와 올해 주요 활동 계획 발표 등으로 진행했다.

고성신 광주본부장과 김안석 한국새농민중앙회 회장, 노흥기 광주시회장 등 새농민회 회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새농민회는 올해 선진 영농기술 교육과 사회 공헌 등 대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날 송정농협 조합원 최민하·이순덕씨 부부와 북광주농협 김관욱·고안심씨 부부가 한국새농민중앙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남광주농협 운영길·이순례씨 부부는 농협중앙회장 감사패를 받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정월대보름 농산물 나눔



농협 전남본부와 농가주부모임 전남도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3일 목포역 광장에서 정월대보름 맞이 잡곡·부럼 꾸러미를 행인들에 나눠주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잡곡·부럼 꾸러미 1000개

농협 전남본부와 농가주부모임 전남도연합회는 지난 3일 지역민들에게 잡곡과 부럼 꾸러미 1000개를 나눠주며 정월대보름 맞이 풍년을 기원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목포역 광장에서 농가주부모임 전남도연합회 회원들은 여성 농업인이 생산한 잡곡과 부럼 꾸러미 1000개를 시민들에 나눠줬다.

전남농협은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2023년 건강

과 풍요를 기원하고 여성 농업인의 역할을 알리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농협은 시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 안내물을 나눠주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벌였다.

박종택 전남본부장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우리 농산물과 함께 모두 풍요로운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며 "올해도 여성 농업인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